

초등학생의 학교주변 폭력 피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chool Violence in the Elementary Schools in Korea

김 선 애
나사렛대학교 아동학과

Kim, Sun-Ae
Dept. of Child Studies, Korea Nazarene Univ.

Abstract

This paper tries to find out the prevalence of the school violence among the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explores variables to explain the violence based on the various victimization theories including the life style theory. One out of ten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y had at least one experience of victimization. Bullying was found out to be the most frequent type of the school violence. The school violence experience are shown to have no statistical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life style of respondents, the family background, and the academic achievements, but to have relatively high correlation to delinquency propensity. This may indicate that both offender and victim of the school violence could be recruited from the same group.

Key words: school violence, predatory behavior, physical aggression, bullying

I. 서론

학창시절에 학교 안이나 또는 학교주변에서 학생들간에 주먹다짐을 하는 풍경은 우리에게 그리 생소한 것도 아니고 그림을 그려보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학교주변의 불량배에 의한 피해 역시 비일비재한 현상이다. 그러나 학교주변에서의 폭력은 해가 거듭될수록 발생 횟수가 빈번해지고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해지는 양상을 띄고 있어 더 이상 자라나는 학생들의 있을 수 있는 주먹질 정도로 방관할 수만은 없는 실정에 이르렀다. 금품갈취, 난무하는 폭력 등에 관한 메스컴의 실태보고는 학생과 학부모 및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게 했으며, 급기야는 대통령이 직접 관계 부처 장관에게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안에 학교폭력을 근절할 것을 지시하게 이르렀다.

학교주변의 폭력은 비단 요즈음에만 있는 현상은 아니나 발생건수와 피해 정도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심각해져, 학생들이 당하는 범죄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올바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Corresponding author: Sun-Ae Kim
Tel. (0417) 570-7795, Fax. (0417) 570-7725
E-mail : sakim@dove.nazarene.ac.kr

는 현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공식통계를 중심으로 살펴 본 우리 나라의 청소년비행은 양적인 증가와 질적인 흉포화를 그 특징으로 한다. 우리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범죄가 집계된 1963년이래 전체범죄에 청소년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 전후로 그다지 변화가 없었으나 1992년 이후로 양적 증가를 보이고 있고, 특히 성인범죄에서 나타나는 범죄의 흉포화가 청소년범죄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폭력범죄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범죄라고 간주되는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에서 청소년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살인의 경우에는 약 30% 정도이며, 강도와 강간의 50-60% 정도나 되고 있다. 전체범죄의 약 10% 정도가 청소년범죄라는 점을 상기해 보면, 청소년 강력범죄가 전체 청소년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아 성인에 비하여 약 5배 정도나 되고 있다. 또한 비행을 저지르는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비행의 정도가 심각한 상태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김준호, 1994).

청소년비행의 질적인 흉포화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중의 하나가 요즘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주변 폭력이다. 같은 반 친구들에게 지속적으로 시달리면서 금품을 빼앗긴 학생이나 폭력서클에서 탈퇴한다고 몇 시간이고 감금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집단폭행을 당한 학생, 학교나 집 근처에서 불량학생에게 금품을 갈취 당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학생 등에 관한 각종 매스컴의 보도는 학교주변 폭력의 심각도와 흉포화를 보여 준다. 더군다나 학교폭력에 견디지 못해 전학을 가는 학생들이 생겨나고 심지어는 자살을 한 심각한 사례)마저 발생하기에 이른 것이 학교주변 폭력의 현주소이다.

앞서 살펴본 청소년 비행에 관한 공식통계를 포함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청소년들의 범죄, 비행사건의 발생 및 검거 등에 관한 각종 통계보고가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범죄나 비행사건은 공식

통계 집계 상 숨겨진 채 현재화되지 않은 사건들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이런 발견되지 않은 각종 잠재적인 범죄나 비행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집계방법의 그 한계로 인해, 범죄나 비행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정보를 얻고 이를 기초로 그 현상을 해명하는 피해자조사의 방법이 사용되어야만 한다. 피해자조사 방법은 공식통계에서 알 수 없는 숨은 범죄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이 어느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떤 종류의 피해를 당하는가 등에 관해 가해자 중심의 통계에서 알아낼 수 없는 요인들을 밝혀낼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우리 나라에서는 1974년에 중앙청소년 보호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청소년의 피해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이며, 그 후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소규모 단위로 행해진 조사가 몇 건 있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서울시 중고등학교 학생 5,587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범죄 피해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인 피해자조사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1)의 조사에 의하면, 중학교 남학생의 거의 60%, 고등학교 남학생의 약 50%가 일년 내에 폭행, 협박, 금품갈취 등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도 남학생보다는 적으나 평균 15%의 중고등학생이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응답을 하였으며, 여자이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성비행 피해(가벼운 성추행 포함)를 합하면 남자와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신뢰할만한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 연구대상이 중고등학생으로 한정되어 있다. 청소년폭력에방재단(1996)의 상담전화 사례 분석 결과를 보면 학교주변 폭력이 이제는 초등학교 학생에까지 확산되었다는 증거가 발견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상담전화 발생건수 또한 묵과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상급생이 하급생에게 돈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구타하고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혀를 자른 사건(한겨레, 96.3.8일자 : 23)의 보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

1)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주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사회단체인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설립되었으며, 학교주변 폭력의 심각성이 언론의 본격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음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다. 현재, 초등학생이 학교주변 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음에 대한 사례보고가 접수되고 있으나 그 현상에 대한 실증적인 데이터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현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율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폭력의 대상자와 피해자로서의 인구는 비단 중고등학생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학교주변 폭력의 유형화가 상당히 단순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는 폭력을 금품갈취, 폭행, 협박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의 상담자료를 보면 가장 심각한 학교폭력은 소위 '이지메'로 다수의 학생이 한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 괴롭히는 과정에서 때에 따라서는 금품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금품보다는 각종 심부름, 놀림, 툭툭 치는 것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가 많이 신고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지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제 더 이상 초등학교가 학교주변 폭력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초등학생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신체적으로 열등하며 상급생들에 의한 학교주변 폭력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해대상자로 선택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피해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괴롭힘이라는 형태의 폭력이 학교 내에 유행병처럼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호소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학교주변 폭력의 한 유형으로서의 이지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들이 입는 학교주변 폭력 피해

의 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피해 정도뿐만 아니라 피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상황과 가해자의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셋째, 학생들의 생활양식과 본인의 비행성향, 가정환경과 학교 성적 등이 학교주변 폭력 피해와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II. 이론적 배경

1. 피해자 중심이론

전통적으로 범죄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사회병리학적 기초 위에서 전개되었다. 의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병의 원인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처럼, 범죄라는 사회 병리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의학의 대상이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듯이 범죄에 대한 학문적 관심 역시 가해자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것이다. 가해자의 어떠한 특성이 범죄에 빠져들게 만드는가에 대한 관심은 가해자의 생물학적 특성, 심리적 특성, 성격적 특성은 물론이며 가해자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 등에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이 아직 모색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은 가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범죄학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의학에서도 발견된다. 세균과 바이러스가 병을 유발시키는 것은 사실이나 같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면, 세균과 바이러스는 병에 필요조건은 되어도 충분조건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과 이에 더하여 병에 걸린 환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병에 대처한다는 것이 병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예방의학이 발전되었다 볼 수 있을 것이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반성에서 출발되었다. 1948년 Hentig 교수의 기념비적 저

2) 청소년폭력예방재단(1996)에 의하면 일회성 폭력 피해 경험 28.2%, 반복적인 폭력 피해 경험은 7.5%, 금품갈취 피해는 32.3%, 심리폭력 피해는 22.8%, 따돌림이나 놀림피해는 14.1%의 피해율을 보여, 이중 일회성 폭력과 금품갈취 피해를 제외하면 학교주변 폭력 중 지속적인 괴롭힘이 전체 피해의 약 40%를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작이래(Hentig, 1948), 피해자학은 범죄학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왔고, 오늘날에는 가해자 중심 범죄학과 더불어 범죄학의 중요한 분과로 인식되어 다양한 이론이 출현하였다. 피해자를 옹호하는 입장이건 비난하는 입장이건 간에 피해자학은 범죄가 가해자-피해자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한다는 인식 하에서 다음의 4가지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 첫째는 범죄와의 근접성(proximity to crime)으로서 범죄 다발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범죄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가해자와 물리적 거리가 근접해 있는 사람이 피해를 당할 확률이 높다는 어찌면 상식적인 가정인 것이다. 둘째는 범죄에 대한 노출(exposure)이다. 노출이란 범죄에 대한 취약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가해자가 쉽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야간에 우범지역에 돌아다니는 사람의 피해율이 높은 것은 피해자가 범죄에 그만큼 노출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셋째는 표적의 유인성(target attractiveness)이다. 유인성이란 범죄 가해자가 범죄 대상자를 선택할 때 범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높은 정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고가의 보석목거리를 걸고 다니는 사람이 절도나 강도의 피해자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말한다. 아울러 남자보다는 여자가, 성인보다는 어린이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역시 가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범죄의 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력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호능력(capable guardianship)을 들고 있다. 보호능력이란 범죄에 대한 예방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회적인 능력과 물리적 능력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사회적인 능력은 가족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사람이 여러 명의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보다 피해 가능성이 높다. 물리적 능력이란 방범시설이 잘 갖추어진 집이나 동네에서 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범죄 피해가 적다는 것이다. 또한 경비가 있는 아파트의 절도율이 경비가 없는 연립주택보다 절도율이 낮은 것은 범죄에 대한 보호능력이 높기 때문인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4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현대의 피해자학은 발전되었다. 범죄의 근접성에 기초한 이론은

동일집단 이론(the equivalent group theory)과 근접성 이론(proximity theory)으로 구체화되었다. 근접성 이론이 가해자-피해자간의 물리적 거리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한다면 동일집단 이론은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사회적 거리에도 관심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는 많은 경우에 같은 집단에 속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는 힘이 센 악당이고 피해자는 선량하나 힘이 없는 사람이라는 흑백 논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유사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명확한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학생 범죄의 경우를 보면 처음에는 피해만 당하던 학생이 피해를 보복하기 위해서 가해자를 폭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비슷한 학생들끼리 어울리다가 싸움이 일어나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불량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학생은 모범생보다는 불량학생인 경우가 더 많다. 미국의 경우를 보아도 가해자가 흑인일 경우에 피해자가 백인보다는 흑인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즉 흑인과 흑인은 물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흑인이 많다면 피해자 역시 흑인이 많을 확률이 높은 것이다. Sengstock(1982)의 상호작용이론(social interaction theory) 역시 사회적 근접성과 동일집단 이론의 연장이라 볼 수 있다. 상호작용 이론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집단에 소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밀접한 상호작용 속에서 범죄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노출과 취약성에 기초한 이론은 일상생활 이론(routine activity theory)과 생활양식 이론(life style theory)으로 발전되었다. Hindelang(1973)에 의해 발전한 생활양식이론과 Cohen과 Felson(1979)의 일상생활 이론은 유인성과 보호능력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범죄 피해자의 일상생활이나 생활양식에 따라 범죄에 대한 노출 정도가 다르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 밤늦게 다니는 사람, 우범지역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 등은 범죄에 대한 노출이 높으며, 비싼 옷이나 장신구를 착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역시 잠재적 가해자에게 그

만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피해자의 일상 생활이나 생활양식이 범죄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합리적 선택이론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고려한 이론으로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무작위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성공 가능성은 높으며 기대되는 보상은 높은 표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Meier & Miethe, 1993). 피해자의 일상생활이나 보호능력을 포함하여 유인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범죄 대상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안점을 둔 이론이라 볼 수 있다.

피해자학에 기초한 이상의 이론이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를 상대적으로 강조하고는 있으나 모든 요소를 어느 정도는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2. 연구의 분석틀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은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한 연구에서 실태와 원인에 대한 망라적인 연구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두었다.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상상누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인에 대한 이해 없이 실태만으로 대책을 세운다는 것 역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론을 기초로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 비행에 대한 기존의 이론과 경험적 연구를 중심으로 각 이론에서 주장하는 여러 요인 중 가장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의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물론 이러한 전략은 숲은 보지만 나무를 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연구가 매우 일천한 우리 나라에서는 나무보다는 숲을 파악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판단되어 포괄적인 접근을 선택하였다.

폭력피해와의 관련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첫 번째 변인은 생활양식 변인이다. 본 연구의 대상

자는 초등학생으로서 발달단계상 초등학생은 가해의 영역에 속하기보다는 피해에 근접 하다고 판단됨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해보다는 피해에 초점을 맞추었다. 피해자에 관련된 요인은 주로 일상생활 이론과 유인성에 기초하여 관련 변인을 선정하였다. 등하교 길에 우범지역을 통과하는지,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또 학교를 가려면 전자오락실, 비디오방, 술집 등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을 지나가야 하는지 등이 일상생활에 기초한 요인이며 용돈 액수, 고가의 옷을 입고 다니는지, 혹은 다른 사람의 눈에 띄는 특이한 옷차림을 하는지, 저녁시간에 집 밖에 나가 노는지 등이 유인성에 기초한 요인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피해자의 비행 성향 변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근접성과 동일집단 이론에 착안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일집단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즉 상당수의 피해자는 가해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고자 하여 피해자의 비행성향을 살펴본다. 개인의 비행성향은 폭력피해의 위험과 관련된다.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다(Hindelang, Gottfredson & Garofalo, 1978; Jensen & Brownfield, 1986; Sampson & Lauritsen, 1990).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폭력에 가장 피해자가 되기 쉬운 사람은 그러한 행위를 많이 저질러 본 사람이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중첩될 가능성 또한 높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비행성향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행위 속성과 더불어 폭력 가해자들과의 접촉이 빈번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폭력피해를 당할 위험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가해자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피해자와 가해자의 교차성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대상자가 초등학생이라는 한계점이 있으나 그 안에서의 관계성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셋째, 가정환경 변인과 학교주변 폭력 피해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과 비행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기존의 이론들은 가족을 구조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그 영향력을 살펴보고 있다. 그 중 가족의 구조적 측면보다는 기능적인 측면이 비행과 관련된다는 연구가 지배적이다(김준호, 1994; 김준호·김선애, 1996; Nye, 1958; Erickson & Empey, 1963; Voss, 1966; Hindelang, Hirschi & Weis, 1979). 가정의 사회경

제적 지위, 결혼가정 등과 같은 가족의 구조적 측면은 19세기 이래로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이론적 배경을 갖고 있다. 특히 가난과 범죄와의 관계를 밝히려는 시도에서 청소년 비행이론이 출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경험적인 연구에서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결과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보다는 가족의 기능적인 측면, 즉, 부부관계와 부모-자녀 관계가 자녀의 행동에 유의미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Emery, 1982; Grych & Fincham, 1990; O'Leary & Emery, 1984). 이 중에서도 가해자 중심의 연구에서 중요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Hirschi(1969)의 사회통제이론 중 부모의 감독(Monitoring) 변인이다. 부모의 감독은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각이며(Crouter, MacDermid, McHale, & Perry-Jenkins, 1990; Patterson & Stouthamer - Loeber, 1984), 자녀의 활동, 사회적 접촉 관계, 행방에 대한 부모의 주의로 관리자로서의 부모 역할 중의 한 면이다. 가정에서의 부모의 감독은 가해의 방지 요인으로 이미 인정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 환경에서 자녀에게 향하는 영향력을 선택적으로 조절해 주고, 물리적이거나 심리적인 유해환경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관리자로서의 부모의 역할이 과연 자녀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에도 효과적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가족의 구조 중 결혼가정 여부는 부모의 감독과 맥을 같이하여 피해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가정의 경우는 부모의 부재를 가져오며 이로 인하여 가족관리기술이 위협 당할 수 있고, 이러한 가족관리의 붕괴는 자녀의 피해와 연관될 수도 있다는 가정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 관련 요인은 성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 관련 요인 중 특히 성적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 나라에서 성적이 갖고 있는 사회적 중요성 때문이다. 학업에서의 성취는 선행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층과 관계없이 비행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김준호, 1989; Hirschi, 1969). 또한 학업에서의 실패는 대부분의 학교활동에서의 소외를 초래하게 되고, 반 친구들과 사이에서 존중감을 상실하게 하며,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특권과 기회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

아 반항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Reiss & Rhodes, 1969). 이 연구는 낮은 학업 성취는 비행과도 관련되지만 성적이 나쁜 학생은 학교에서 소외당하거나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행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는 학교 성적 변인이 폭력 피해와도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학교주변 폭력이라 함은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를 한정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모집단을 삼는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범죄피해에서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까닭은 학교폭력이 더 이상 청소년층의 문제만이 아니며 그 피해대상이 여러 선행연구 결과 좀 더 어린 초등학교 학생에 까지 퍼져 있다고 추정되어 그 정확한 실태 파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대표성 있는 표본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를 선정할 때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서울시를 크게 강남과 강북 두 구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지역에서 초등학교 2학교를 선정하였으며, 4학년에서 6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 125명과 여학생 125명의 응답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심층면접자료와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설문지를 제작하였으며, 문항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일차적으로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에 대한 이해 정도와 현실성 정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설문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고 초등학교 교사 1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이 때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어휘로 제작되었는지, 또한 학생들이 응답하기에 어려움이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교사의 지시 아래 1996년 5월에 집단별 조사로 진행되었다.

2. 측정도구

1) 학교주변 폭력실태 측정

본 연구에서는 학교주변 폭력실태의 파악에 목적을 두고 학교주변의 폭력배에 의한 성인범죄나 교사나 부모의 폭력은 제외하였다. 학생들이 학교 안이나 학교주변, 거리, 유흥장소 등에서 입는 빈번하게 입는다고 생각되는 폭력피해유형을 금품갈취, 폭행, 괴롭힘 등의 세 유형으로 세분하였다.

금품갈취란 법적으로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한다(이재상, 1989). 본 연구는 가해자나 피해자가 주로 학생이므로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지난 일년간) 학교 안이나 밖에서 돈이나 물건(시계, 가방, 운동화, 카세트 등)을 빼앗긴 적이 있나요?'로 질문하여 없다, 한 번 있었다, 여러 번 있었다 등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이재상, 1989). 본 연구에서는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지난 일년간) 학교 안이나 밖에서 누군가가 돈이나 물건과는 상관없이 시비를 걸며 때린 적이 있나요?'를 질문하여 폭행 피해를 없다, 한 번 있었다, 여러 번 있었다 등으로 측정하였다.

괴롭힘이란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리는 것과 같은 심리적 폭력과, 놀리거나 공연히 툭툭 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등의 신체적 언어적 폭력이 동반되는 학교폭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지난 일년 동안) 학교 안에서 괜히 놀리고, 건드리고, 숙제를 시키는 등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통해 괴롭힘 피해를 측정하였다.

각각의 폭력 유형에 대해 폭력 피해율과 피해

정도, 피해장소, 가해자 신분 등을 질문하였으며, 이 모든 상황은 피해를 여러 번 당했을 경우 그 중 한 경우만을 염두에 두고 응답하도록 하였다.

2) 관련변인의 측정

생활양식은 위험에의 노출과 연관되는 변인들로 학교주변에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이 있는지, 등하교시 유흥가나 우범지역을 걸어서 지나가는지, 밤의 외출이 잦은지의 여부 등에 관해 질문하였고, 피해자의 비행성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재산비행(예 : 고의로 남의 물건을 부순 적이 있다), 폭력비행(예 :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 본 적이 있다), 질서비행(예 : 학교를 마음대로 빠져 본 적이 있다) 등으로 세분하였으며, 가정환경 및 학교요인과 피해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고, 누구와 함께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언제 돌아올 것인지 알고 계신다' 등의 4개 항목으로 구성된 부모의 감독 변인과, 결혼가정 여부, 학교 성적 등을 설문에 포함시켰다.

3. 자료분석

학교주변 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PC+를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학교주변 폭력 실태

1) 폭력 피해율

<표 1>에 의하면 응답자 250명 중 학교주변

<표 1> 학교주변 폭력 피해율

단위 : 명, ()안은 %

피해유형	남학생(n=125)	여학생(n=125)	전체(n=250)
학교주변 폭력	75(60.0)	48(38.4)	123(49.2)
금품갈취	50(40.0)	16(12.8)	66(26.4)
폭행	36(28.8)	14(11.2)	50(20.0)
괴롭힘	36(28.8)	34(27.2)	70(28.0)

〈표 2〉 빼앗긴 돈과 물건의 액수

단위 : 명, ()은 %

	돈의 액수			물건의 액수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1000원 미만	26(61.9)	6(50.0)	32(59.1)	11(68.8)	2(40.0)	13(61.8)
1000 - 4000원	8(19.0)	1 (8.3)	9(16.6)	5(31.3)	3(60.0)	8(38.0)
4000 - 8000원	8(19.0)	5(41.7)	13(24.0)	0 (0.0)	0 (0.0)	0 (0.0)
계	42(100.0)	12(100.0)	54(100.0)	16(100.0)	5(100.0)	21(100.0)

폭력 피해를 당한 것은 123명으로 49.2%의 피해율을 보이고 있다. 학교주변 폭력 피해율은 지난 일년간 금품갈취, 폭행, 괴롭힘 등 세 가지 유형의 폭력 중에서 한 가지라도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가를 의미하는데, 본 연구 결과 초등학교 열명 중 약 5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학교주변 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주변 폭력을 금품갈취, 폭행, 괴롭힘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본 피해율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금품갈취의 피해율은 전체 표본 중의 26.4%(250명 중 66명)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과는 50명을 한 반으로 보았을 때, 한 반에서 약 13명 정도의 초등학교생이 타인에게 돈이나 물건을 빼앗겨 본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금품갈취 피해율이 높음을 보여준다.

폭행 피해율은 지난 일년동안 학교 안이나 밖에서 누군가가 돈이나 물건과는 상관없이 시비를 걸며 때린 적이 있는지에 관한 응답에 의해 산출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표본의 20.0%가 폭행 피해율을 보고하고 있어, 50명이 한 반일 때 50명 중 10명 꼴로 지난 일년 동안 폭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누군가가 괜히 놀리고, 건드리거나, 숙제를 시키는 등 타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피해율은 28%(250명 중 70명)인 것으로 나타나, 학교주변 폭력 유형 중 가장 높은 피해율을 보였다. 또한 금품갈취나 폭행과 같은 폭력 유형의 피해율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피해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괴롭힘의 경우에는 남학생 28.8%, 여학생 27.2%로 피해율이 남녀간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를 통해 괴롭힘이라는 유형의 폭력이 초등학교에 만연되고 있는 폭

력의 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2) 폭력 피해정도

여기에서는 폭력유형을 금품갈취, 폭행, 괴롭힘으로 세분화하여 피해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품갈취로 인해 빼앗긴 돈과 물건의 값(돈으로 환산한 액수)은 다음과 같다.

돈을 빼앗겼을 경우 응답자 32명 중 약 60% 정도가 1000원 미만의 피해액을 보고하고 있다(남학생 : 61.9%, 여학생 50%). 물건일 경우에는 본 문항에 응답한 남학생 16명의 약 68.8%가 돈으로 환산했을 때 1000원 미만의 물건을 갈취 당했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60%(5명 중 3명) 정도가 1000원에서 4000원에 해당하는 물건을 빼앗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생의 금품갈취 액수는 그리 높은 편은 아니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피해액수가 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피해자는 공포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폭행 피해 정도는 다음 <표 3>과 같다.

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 40명 중 75.4%가 상처는 없었던 것으로, 25%가 상처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병원에 갈 정도의 상처를 입은 경우도 폭행 피해자의 5.6%나 된다.

괴롭힘은 금품갈취나 폭행과는 또 다른 학교주변 폭력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등한시되어 왔던 괴롭힘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상정하고 그에 따른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여기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괴롭힘이 만

〈표 3〉 폭행 피해 정도

단위 : 명, () 안은 %

	남 학생	여 학생	전 체
상처는 없었다	26(74.3)	14(77.8)	40(75.4)
상처는 있었으나 치료받을 정도는 아니었다	7(20.0)	3(16.7)	10(18.8)
병원에 갈 정도로 상처가 있었다	2(5.7)	1(5.6)	3(5.6)
계	35(100.0)	18(100.0)	53(100.0)

〈표 4〉 괴롭힘 피해 형태

단위 : 명, () 안은 %

	남학생	여학생	전 체
특별한 이유 없이 놀림	23(60.5)	17(50.0)	40(55.6)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	8(21.1)	13(39.4)	21(29.6)
공연히 툭툭 치며 괴롭힘	14(36.8)	11(33.3)	25(35.2)
심부름을 시킴	2(5.3)	4(12.1)	6(8.5)
가방, 물건을 들고 가라함	3(7.9)	2(6.1)	5(7.0)
시험지 보여 달라함	2(5.3)	5(15.2)	7(9.9)
숙제시킴	1(2.6)	4(12.1)	5(7.0)
기타	0(0.0)	7(21.9)	7(10.1)

〈복수 응답〉

연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놀림'을 당한 경우가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어서 남녀 불문하고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항목은 남학생의 경우 공연히 툭툭 치며 괴롭힘(36.8%),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21.1%)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39.4%), 공연히 툭툭 치며 괴롭힘(33.3%)인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의 피해반복 정도는 거의 매일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주일에 한두 번 괴롭힘을 당한다는 비율마저 고려한다면 응답자 71명 중의 약 63%(45명)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빈번

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놀리거나 공연히 툭툭치며 괴롭히는 행위,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리는 행위 등은 언뜻 보면 폭력이 아닌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고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구체적인 신체적 폭력이 아닐지라도 이러한 행위로 인한 심리적 피해는 상당히 클 것이기에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3) 피해 장소

남학생의 경우에 금품갈취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장소는 주책가(38.3%)인 것으로 나타나며, 다음으로는 만화가게, 전자오락실 등의 장소가 높

〈표 5〉 괴롭힘 피해반복 정도

단위 : 명, () 안은 %

	남학생	여학생	전체
거의 매일	13(33.3)	12(37.5)	25(35.2)
일주일에 한두번	12(30.8)	8(25.0)	20(28.2)
한 달에 서너번	3(7.7)	1(3.1)	4(5.6)
한 달에 한두번	6(15.4)	6(18.8)	12(16.9)
두세 달에 한두번	5(12.8)	5(15.6)	10(14.1)
계	39(100.0)	32(100.0)	71(100.0)

〈표 6〉 학교주변 폭력 피해장소

단위 : 명, () 안은 %

	금품갈취			폭행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학교내	7(14.9)	3(23.1)	10(16.6)	4(14.8)	4(36.4)	8(21.0)
학교 근처 길	7(14.9)	2(15.4)	9(15.0)	2(7.4)	2(18.2)	4(10.5)
학원, 독서실	1(2.1)	1(7.7)	2(3.3)	0(0.0)	1(9.1)	1(2.6)
편의점, 분식집, 노래방, 오락실, 비디오방, 만화가게	10(21.2)	0(0.0)	10(16.6)	6(22.2)	1(9.1)	7(18.4)
주택가	18(38.3)	5(38.5)	23(38.3)	9(33.3)	2(18.2)	11(28.9)
주책가	1(2.1)	0(0.0)	1(1.6)	1(3.7)	0(0.0)	1(2.6)
유원지, 공원, 고수부지	1(2.1)	2(15.4)	3(5.0)	1(3.7)	1(9.1)	2(5.2)
지하철역, 지하도안, 기차역, 버스정류장, 육교아래	2(4.3)	0(0.0)	2(3.3)	4(14.8)	0(0.0)	4(10.5)
기타						
계	47(100.0)	13(100.0)	60(100.0)	27(100.0)	11(100.0)	38(100.0)

은 피해율을 보이고 있으며(21.2%), 학교 내 건물 뒤나 후미진 곳(14.9%)도 빈번하게 금품갈취가 행해지는 장소인 것으로 보인다. 여학생의 경우에도 역시 주택가가 금품갈취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장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순위로는 학교 근처 길이나 지하철역, 지하도안, 버스 정류장과 같은 장소가 피해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만화가게나 전자오락실 등과 같은 장소가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하는 피해장소였으나 여학생은 이곳에서의 피해를 보고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까닭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이러한 장소의 출입이 제한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폭행 피해도 이와 동일하게 남학생의 경우 응답자 47명은 주택가(33.3%)와 만화가게나 편의점 등(2.2%)에서 가장 빈번하게 피해를 당한 것으로 응답해, 학교 밖에서 폭행을 당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의 경우는 주택가에서 금품

갈취를 당하는 비율이 높았던 것과는 달리 폭행은 주로 학교 내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보고한율이 36.4%로 가장 높았다.

4) 가해자 신분

금품갈취 가해자가 누구 같아 보였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전체 응답자 60명 중 약 60-70% 정도가 '선배(같은 학교 + 다른 학교)'를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다. 이는 본인보다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금품갈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그 중에서도 남학생 피해자 중 응답자의 57.4%(47명 중 27명), 여학생 피해자 중 응답자의 53.8%(13명 중 7명)가 다른 학교 선배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빼앗겼음을 알 수 있다. 이 다른 학교 선배에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금품갈취를 하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포함될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나이

〈표 7〉 가해자 신분

단위 : 명 () 안은 %

	금품갈취			폭행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같은 반 학생	2(4.3)	2(15.4)	4(6.6)	2(6.9)	3(21.4)	5(11.6)
같은 학교 선배	5(10.6)	1(7.7)	6(10.0)	6(20.7)	4(28.6)	10(23.2)
다른 반 학생	2(4.3)	0(0.0)	2(3.3)	0(0.0)	0(0.0)	0(0.0)
다른 학교 동급생	4(8.5)	0(0.0)	4(6.6)	3(10.3)	0(0.0)	3(6.9)
다른 학교 선배	27(57.4)	7(53.8)	34(56.6)	14(48.3)	5(35.7)	19(44.1)
모르겠다	7(14.9)	3(23.1)	10(16.6)	4(13.8)	2(14.3)	6(13.9)
계	47(100.0)	13(100.0)	60(100.0)	29(100.0)	14(100.0)	43(100.0)

<표 8> 생활양식과 학교주변 폭력 피해의 상관관계 : 초등학교 남학생

	학교주변환경	우범지역	동반여부	용 돈	옷 차 립	저녁외출
금품갈취	-.01	-.13	-.04	-.02	.18 *	.07
폭 행	.05	.10	.03	.08	.14	.10
괴 립 힘				.09	.13	.08

* p < .05 ** p < .01 *** p < .001

가 어리고 신체적으로도 왜소한 초등학생이 이들의 금품갈취 대상이 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폭행의 경우에도 남학생은 동급생보다는 상급생에 의해 피해를 많이 입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학생 역시 상급생에 의한 피해가 많은 것은 동일하나, 적지 않은 수가 같은 반 학생에 의한 폭행 피해를 보고하고 있다.

2. 피해의 원인

범죄 피해자학에 의하면 범죄 피해란 사회적 진공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다양한 특성과 상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피해자학으로부터 학교 범죄 피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요인을 선정하였다. 그 첫째는 근접성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등에 근거한 피해 학생들의 생활양식 변인, 둘째는 동일집단 이론에 입각하여 비행이 많이 하는 학생들이 피해 역시 많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선정한 비행성향 변인과, 마지막으로 학교 성적, 부모의 감독, 결손가정 등의 요인들이다. 이 변인들과 범죄 피해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양식

생활양식은 학교주변에 유흥업소가 있는지의 여부와 우범지역, 저녁외출, 옷차림, 동반여부 등의 변인으로 구성하여 학교주변 폭력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괴롭힘의 경우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만 조사하였기 때문에 학교주변 환경이나 우범지역 통과여부, 동반 여부 등과의 관계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8>을 보면 남학생의 경우 생활양식과 범죄 피해 사이에는 단순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금품갈취의 경우 옷차림만 통계적으로 p<.05 수준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괴롭힘과 폭행의 경우에는 어떠한 생활양식 관련변인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옷차림이 화려하거나 고가의 옷을 입는 학생이 금품갈취의 피해가 높다는 것만으로 생활양식이나 합리적 선택이론이 검증되었다고 해석하기는 힘들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등하교길에 우범지역을 통과하는 학생이 금품갈취의 피해를 더 많이 입는 반면에 동반자가 있는 학생은 피해를 덜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경우에서 근접성(proximity)과 보호능력(guardianship)의 영향이 더 강하게 밝혀진 것은 당연한 결과로 해석된다. 우범지역의 불량학생이 신체적인 힘이 약한 여학생을 금품갈취의 대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명이 같이 다니면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화려한 옷차림을 한 여학생이 오락실 등에 자주 출입하면 폭행 피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남학생은 물론이고 여학생의 경우에도 생활양식과 학교주변 폭력피해 사이에는 몇 몇 변인을 제외하고는 강한 관계를 보이지는 않는다. 관계가 있는 것은 학교주변의 환경과 등하교길 우범지역 통과 등과 같은 유해환경인 것을 알 수 있다(여학생의 경우에 한정). 이와 같은 변인은 학생의 행동과는 별개인 것으로서 학교주변 폭력피해와 생활양식간에 관계가 크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범죄피해가 피해자가 조심함으로 예방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남의 눈에 띄는 옷차림을 하는 것이 피해와 관련되었다는 결과(남학생 : 금품갈취, 여

〈표 9〉 생활양식과 학교주변 폭력 피해의 상관관계 : 초등학교 여학생

	학교주변환경	우범지역	동반여부	용돈	옷차림	저녁외출
금품갈취	.15	.21 *	-.20 *	.01	-.01	.16
폭행	.19 *	.15	.11	.16	.24 **	.17
괴롭힘				.08	.11	.01

* p < .05 ** p < .01 *** p < .001

〈표 10〉 본인의 비행 성향과 학교주변 폭력 피해의 상관관계

	재산비행		폭력비행		질서비행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금품갈취	.03	.03	.13	.04	.11	.18 *
폭행	.05	.01	.12	.05	.01	.08
괴롭힘	-.02	-.07	.22 *	.16	.04	-.10

* p < .05 ** p < .01 *** p < .001

〈표 11〉 가정환경·성적과 학교주변 폭력 피해의 상관관계

	부모감독		결손가정		학교성적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금품갈취	-.05	-.08	-.01	.08	.01	-.00
폭행	-.04	-.03	.01	.08	-.01	-.14
괴롭힘	-.01	-.07	-.00	.02	-.12	-.05

* p < .05 ** p < .01 *** p < .001

학생 : 폭행)는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는 피해가 학생들의 행동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2) 피해자의 비행 성향

비행 성향의 하위 변인은 재산비행, 폭력비행, 그리고 질서비행으로 나누었으며, 지위비행은 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있는 비행일 뿐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에게 술이나 담배 경험에 있는가 등의 질문을 한다는 것이 도덕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 제외하였다.

<표 10>은 비행 성향과 학교주변 폭력 피해간의 관계를 상관계수(Pearson-r)를 통해 알아본 결과이다. 남학생의 경우 괴롭힘을 제외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인의 비행성향과 학교주변 폭력 피해 사이에는 전반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폭력비행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학생이 괴롭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는 동일집단 가설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는 결과라 해석된다.

여학생도 남학생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변인들 사이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질서비행과 금품갈취 뿐으로 질서비행을 많이 하는 학생이 금품갈취의 피해가 높다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본인의 비행 성향이 높을수록 금품갈취의 피해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는 점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집단에 속해 있을 확률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3) 가정, 학교

마지막으로 가정, 학교와 학교주변 폭력 피해와의 상관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정 관련 변인은 부모의 감독과 결손가정, 학교는 성적이 변인으로 선정되었다. 가정 변인 중

수입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정의 수입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기 힘들어 제외하였으며, 일반적으로 학교변인에 포함되는 비행 친구 여부 역시 그 신뢰성이 의심되어 제외하였다.

남학생의 경우에 가정환경을 위시한 주위 환경과 학교주변 폭력 피해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고 있지 않으며, 여학생 역시 <표 11>을 보면 남학생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학교주변 폭력 피해가 적어도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가정환경을 위시한 주위 환경과도 관련이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부모의 감독이 소홀한 학생이 피해를 당하는 것도 아니며, 결손가정 출신 학생들이 놀림을 더 받는 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V. 요약 및 결론

학교주변 폭력의 피해자는 흔히 중·고등학생으로 한정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주변 피해의 안전충이라 생각해 오던 초등학생의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그 원인 규명에 목적을 둔다.

먼저 학교주변 폭력 실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주변 폭력은 초등학생 열 명 중 한 명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

학교주변 폭력을 세분화하면 괴롭힘 28%, 금품갈취 21.9%, 폭행 20%의 피해 경험이 보고되었다. 따라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주변 폭력 예방에 좀 더 세심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주변 폭력 피해 정도는 다음과 같다. 금품갈취의 경우 남학생의 빼앗긴 돈과 물건의 액수가 1000원 미만인 경우가 약 62-69%에 해당했으며, 여학생은 돈의 경우 1000원 미만이 50%, 물건인 경우에는 1000-4000원 상당의 물건을 빼앗겼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6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괴롭힘 형태의 폭력은 '특별한 이유 없이 놀림'을 당하는 경우가 피해자의 55.6%를 차지하는 가장 일반적인 피해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폭력 피해장소로 남학생은 주택가와 만

화가게, 전자오락실, 노래방, 비디오방 같은 시설에서의 금품갈취, 폭행 피해 보고율이 가장 높았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금품갈취는 주택가가, 폭행의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의 폭행 피해를 보고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초등학생들에 대한 학교주변 폭력의 피해자는 주로 상급생이며, 이 중에서도 다른 학교 선배인 경우가 약 50%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피해의 원인을 생활양식 관련변인, 비행성향, 가정·학교 관련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양식과 학교주변 폭력 피해와는 몇몇 변인만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옷차림이 화려하고 우범지역을 등하교길에 통과하는 학생들이 금품갈취와 폭행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상관성의 정도는 그다지 높지 못해 생활양식 이론을 검증했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남학생의 경우 본인의 폭력비행과 괴롭힘 피해간에 의미 있는 관계가 발견되었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질서비행을 많이 할수록 금품갈취 피해 대상이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분적으로 동일집단 가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셋째, 가정환경·성적은 학교주변 폭력 피해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생활양식과 학교주변 폭력피해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학교주변 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 조심만을 그 대책으로 내세우는 것에 대한 한계를 보여 주는 것이다. 학생들의 학교주변 폭력피해는 학생들 개인의 생활양식과 여기에 더불어 사회의 구조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 자신에게 본인을 노출시키는 기회를 제한하라고 하거나, 항상 보호자의 감독 하에 있게 하여 피해를 감소시키는 것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학생들은 여전히 유해환경 속에서 학교를 가야하며 학생간의 상호작용에 부모가 개입하여 항상 모든 것을 감독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폭력을 허용하는 구조적이고 환경적인 요인들에 대한 기성세대들의 자성과 변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주

변 폭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생들의 다툼이나 갈등이 폭력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는 데에 필요한 태도와 행동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감독과 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주변 폭력 피해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부모의 감독은 자녀가 어디에 있고, 누구와 같이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모의 지각을 의미한다. 학교주변 폭력 피해 학생은 피해를 당한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며 보복을 당할 가능성 때문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숨기려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피해는 학교라는 울타리 내에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피해를 잘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앞서 생활양식과 피해와의 관계에서 대부분의 생활양식 변인이 학교주변 폭력 피해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의 현재의 위치와 행동을 파악하고 있다고 하여 폭력피해로부터 자녀가 비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다 학교주변 폭력에 자체에 대한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관심만이 자녀를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본인의 비행성향과 학교주변 폭력피해간의 상관성은 폭력의 피-가학적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어진다. 본 연구결과는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논의이다. 연구대상자를 중고등학생 층으로 확대할 경우 피해와 가해의 중층적 특성이 더욱 뚜렷해 질 것이며, 생활양식과의 관계도 좀 더 의미 있어 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우리는 대다수의 초등학생들이 학교주변 폭력 피해 가능자로 노출되어 있음과, 신체적으로 중고등학생들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는 초등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요청됨을 알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학교주변 폭력이 청소년층의 문제만은 아니며 그 피해대상이 좀 더 어린 초등학교 학생에까지 이르고 있음에 주목해야만 한다. 본 연구결과는 폭력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무작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대처 및 예방은 피해를 중심으로 마련되어야 하기보다는 가해 유발 요인을 통제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

이다. 폭력의 가해가 비교적 사회화 요인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생되어진다면 그 사회적 요인과 계기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더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학교주변 폭력의 피해와 가해 전반에 대한 관심과 특히 피해와 가해간의 피-가학적 집단에 대한 특별한 주목은 학교주변 폭력의 해결책을 찾아줄 수 있는 하나의 출구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망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다 보니, 반사회적 행동이나 비행에 관한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학교변인의 하나로 포함되는 친구관계 등에 관한 고찰을 누락시켰다. 여기에서의 친구관계는 주로 비행친구 유무로 측정되어 지는데 초등학교 학생에게 친구의 비행성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질문에 대한 신뢰성 있는 답을 기대하는 것에 대한 한계성과 초등학교 학생의 설문 응답 시간의 제한성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친구변인을 제외하였다. 그러나 친구의 영향력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후 연구에서는 보다 세심한 측정도구 제작을 통해 친구와 피해와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가정환경 변인에는 부모-자녀 관계와 가정 분위기,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부모의 인지도 등에 대한 변인 등을 좀 더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가해자 중심 관련 변인에서 탈피하여 피해자 중심의 원인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가해의 중첩성을 보다 명확히 밝히고 학교주변 폭력의 피해 및 가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져야만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학교주변 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첫걸음으로 학교주변 폭력 피해의 원인을 밝히는 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괴롭힘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사회심리적 접근을 사용한다 보다 정교한 고찰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주제어 : 학교주변 폭력, 금품갈취, 폭행, 괴롭힘

참 고 문 헌

김준호(1989). 우리나라의 범죄문제; 공식통계를

-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2).
- _____(1994). 한국 청소년비행의 실태와 원인, 형사정책연구 5(1).
- 김준호·김선애(1996). 가족의 구조 및 기능과 반사회적 행동, 형사정책연구 2(3).
- 권이중(1996). 폭력은 싫어요; 학교폭력의 예방과 지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이재상(1989). 형법각론, 박영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1). 청소년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 Cohen, L.E. & Felson, M.(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588-608.
- Crouter, A. C., MacDermid, S. M., McHale, S.M., & Perry-Jenkins, M.(1990). Parental monitoring and perceptions of children's school performance and conduct in dual-and single-earner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6(4), 649-657.
- Emery, R.E.(1982). Interpersonal conflict and the children of discord and divorce. *Psychological Bulletin*, 92, 310-331.
- Erickson, M.L. & Empey, T. M.(1963). Court records, undetected delinquency and decision making. *Journal of Criminal Law, Criminology and Police Science*, 43, 456-469.
- Grych, J.H. & Fincham, F.D.(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 - 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 Hentig, Hnas von(1948), *The criminal and his victim*, New Haven, Connecticut: Yale University Press, 1967
- Hindelang, M.J.(1973). Causes of delinquency: A partial replication and extension. *Social Problems*, 20 : 471-87.
- Hindelang, M.J., Gottfredson, M. & Garofalo, J.(1978), *Victims of personal crime: An empirical foundation for a theory of personal victimization*, Cambridge: Ballinger.
- Hindelang, M.J., Hirschi, T. & Weis, J.G.(1979). Self-reported delinquency: The illusion of discrepancy between self-report and official measur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 Hirschi, T.(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ensen, G. & Brownfield, D.(1986). Gender, lifestyle and victimization: Beyond routine activity theory, *Violence and Victims* 1.
- Meier, R.F. & Miethe, T.D.(1993). Understanding theories of criminal victimization, in Michael Tonry, ed., *Crime and Justice: An Annual Review of Research* 17: 459-99.
- Nye, F.I.(1958). *Family relationships and delinquent behavior*.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O'Leary, K.D. & Emery, R.E.(1984). Marital discord and child behavior problems in nonclinical sampl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7, 1097-1126.
- Patterson, G.R. & Stouthamer-Loeber, M.(1984), The correlation of family management practices and delinquency. *Child Development*, 55, 1299-1307.
- Reiss, A.J. & Rhodes, A.L.(1969). Status deprivation and delinquency behavior. *Sociological Quarterly*, 2, 135-149.
- Sampson, R.J. & Lauritsen, J.L.(1990). Deviant lifestyles, proximity to crime, and the offender-victim link in personal violenc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7(2), 110-139.
- Sengstock, M.(1982), Eldery victims of crime: A refinement of theory in victimology", in H.J. Scheider(ed.) , *The Victim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 Voss, H.L.(1966). Socioeconomic status and reported delinquent behavior. *Social Problems*, 3, 314-324.